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 선임 현역선수에서 감독으로 '파격'

V리그 첫 사례...3년 임기 보장



현대캐피탈이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호철 전 감독의 후임으로 파격을 선택했다. 지도자 경력이 전혀 없는 선수 최태웅(39·사진)을 은퇴시켜 신입 사령관으로 선임한다고 2일 발표했다.

1976년생 최태웅 신입 감독은 V리그를 경험한 현역선수에서 바로 지도자로 발탁된 최초의 사례다. 당초 최 감독은 40세까지 현역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팀과 계약기간도 1년 더 남아 있었지만 39세의 나이에 지휘봉을 잡기로 결심했다. 구단은 "선수단에 변화와 혁신, 2015~2016시즌 승리공식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 패기와 전문성을 갖춘 최태웅 감독은 누구보다 선수들의 컨디션과 장단점, 심리적 상태까지 잘 알고 있으며, 같이 오래 코트에서 뛰 만큼 선수들도 신입 감독과의 심리적 거리감 없이 경기를 즐기면서 자신 있는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단의 발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초석'이다. 주전 대부분이 30대여서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당장 성적을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해나간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입 감독에게 3년의 임기를 보장해준 것으로 보인다.

현대캐피탈은 그동안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 접촉해왔다. 어느 후보자는 계약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막판에 틀어졌다. 최종 낙점은 구단주가 했다.

최 감독은 인하사대부고~한양대를 거쳐 1999년 삼성화재에 입단해 실업배구 9연패와 77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1984년 인천 주안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배구를 한 동기가 석진욱, 장병철이다. 박철우의 FA(자유계약선수) 이적 보상선수로 2010년 6월 15일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다. 1998년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돼 2008년 AVC컵대회를 마지막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반납했다. V리그 10년 올스타다. 2010년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과정에서 림프암이 발견됐지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선수생활을 계속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 지금은 완치됐다.

최 감독은 지도자 경험 없이 곧장 지휘봉을 쥐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 해볼 만하다. 도전이고 큰 경험이다. 해볼 만하다. 신선하다"고 답했다. "스피드 있는 빠른 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세트뿐 아니라 공격수와 리시브 등의 역량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걱정하지 않는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 선수들이 나쁘지 않다"며 자신의 배구관과 함께 자신감도 내비쳤다.

한편 최 감독의 선임으로 기존 코칭스태프는 전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 전문기자 marco@donga.com

현장리포트

운영요원 자리이탈 경기중단 프로농구 챔피언 해외토픽

경기운영요원이 자리를 비워 남자프로농구 챔피언이 중단되는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2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동부·모비스의 '2014~2015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7전 4승제) 3차전 3쿼터 도중 경기 가 잠시 끊어졌을 때 경기운영요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 경기장 부처와 전광판 운영 등을 담당하는 요원이었다. KBL 직원과 동부 관계자들의 만류로 그는 3분여 만에 자리로 돌아왔고, 경기는 재개됐다.

해당 경기운영요원이 자리를 뜬 이유는 부처 운영 문제 때문이었다. 양쪽 벤치에서 선수교체와 작전타임을 요청하면 부처를 올리게 돼 있다. 선수교체와 작전타임 모두 경기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일찌감치 본부석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일 뿐이다. 경기가 잠시 끊어졌을 때 급하게 작전타임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경기감독관에 따라 엄격하게 물을 적용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다.

시합장은 챔피언 1·2차전이었다. 공교롭게도 동부 김주성이 자유투를 얻었을 때 모비스는 미리 요청하지 않은 선수교체를 시도했다. 본부석이 이를 다 받아졌고, 동부는 본부석의 부처 운영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도 선수교체 및 작전타임 요청 시점과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처 운영을 놓고 양쪽 벤치의 신경전이 펼쳐졌고, 결국 본부석의 경기운영요원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운영요원 대부분은 홈팀 연고지역에서 농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간혹 벤치와 본부석간의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경기 도중 경기운영요원이 자리를 이탈한 것은 극히 보기 드문 일이었다. 원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IBK기업은행 김사니(오른쪽 끝)가 지난달 31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NH농협 2014~2015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도로공사를 3-0으로 꺾고 우승한 뒤 후배들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사니 눈물...이정철 감독, 세번 기억하다

'V리그 챔피언 MVP 김사니 - IBK 이정철 감독'의 숨은 연연

- 1 올림픽 티켓 놓친 2008년 대표팀 라커룸
- 2 이 감독 부름에 IBK입단...고된 훈련 도중
- 3 몸치료하며 악착같이 뚝 올린주 우승 직후

'NH농협 2014~2015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MVP) 김사니(34·IBK기업은행)는 지난달 31일 우승이 확정된 순간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수많은 경기를 치렀고 정상도 경험했던 베테랑에게도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우승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 '봄배구'의 주인공은 김사니였다. IBK 이정철 감독은 "(MVP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 오늘(3월 31일) 경기에서 몇 차례 보여준 백투스는 예술품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도로공사와의 챔피언 1차전 후 경기를 요약해달라고 했을 때 "역시 김사니였다"는 한마디로 끝냈던 이 감독이었다. 공교롭게도 김사니는 이 감독 앞에서 3번의 눈물을 흘렸다.

● 책임과 좌절

2008년 5월이었다. 이정철 감독과 김사니는 2008베이징올림픽 세계예선전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의 감독과 주전 세터였다. 한국은 일본에서 벌어진 이 대회에서 2승5패에 그쳐 베이징행 티켓을 놓쳤다. 이 감독이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기억이다. 당시 여자선수들의 대표팀 차출을 놓고 말이 많았다. 구단들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았다. 김연경, 정대영, 황연주 등이 아프거나 수술을 한다는 등의 핑계로 대표팀 엔트리에서 빠져들었다.

한국이 세르비아, 폴란드, 일본, 카자흐스탄, 도미니카공화국에 져 탈락이 확정된 날 라커룸에서 유일하게 울던 선수가 김사니였다. "감독님 죄송해요"라며 눈물을 펄펄 쏟았다. 김사니는 "김연경, 정대영, 황연주가 나왔으면 우리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슬펐다"고 회상했다. "그때 김사니 만큼 대표팀 유니폼에 책임감을 느끼고 승리를 열망한 선수는 없었다"고 했던 이 감독은 그 눈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

● 한계와 극복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시즌을 뛰고 돌아온 김사니는 FA(자유계약선수) 3차 협상 막판 이정철 감독의 문자를 받았다. 이 감독은 "우리 같이 잘해보자. 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희가 떠난 뒤 주전 세터 공백에 고민하던 이 감독은 김사니를 원했다. 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를 보낸 그 정서는 김사니는 IBK행을 결정했다.

미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공항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마무리한 입단이었다. 이 감독은 김사니의 나이를 고려해 몇 가지 약속을 했다. 원한다면 숙소에서 생활하는 대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 약속은 절반만 지켜졌다. 훈련이 너무 고됐다. 김사니가 집에 가고 싶어서 힘들어서 못가는 날이 이어졌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표팀에 김희진, 박정아, 남지현 등이 차출되고 팀에는 고작 8명의 선수들만 남아 16명이 하던 훈련을 했다. 김사니는 그 훈련에 못 견뎠고 폭발했다. 감독과의 면담에서 펄펄 눈물을 흘렸다.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버티라고만 하시던 어떡하냐"며 울었다. 이 감독은 "그래도 버티라. 그래야 좋아진다"며 달랬다.

그 때의 눈물이 챔피언의 김사니를 만들었다. 한창 때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해 엉망이었던 몸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신인 때 빼고는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던 김사니는 회상했다. 자신에게 2번째 우승반지를 선물할 준비를 마쳤다.

● 스스로에게 한 칭찬

포스트시즌 들어 김사니의 플레이가 예사롭지 않았다. 꼭 이번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이정철 감독은 "(김)사니가 요즘 엄청 열심히 한다. 예뻐 죽겠다"고 말했다. 후배들도 "코트에서 수비 위치를 알려주고 점수가 나지 않으면 먼저 (김)사니 언니가 자기 잘못이라고 한다. 표정부터 다르다"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쌓아온 성적은 화려했지만, 정작 가지고 있는 반지가 많지 않았던 김사니였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투지가 넘쳤다. 경기 때마다 "언니와는 라이벌이 아니다"고 계속 말했지만, 이번 챔피언전에서 이효희(35·도로공사)와의 대결이 집중 부각되면서 더욱 의지를 불태웠다.

열정과 달리 몸 상태는 나빴다. 힘들게 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이다. 오금이 아파서 경기 도중 절뚝거렸다. 어떤 때는 발이 버티지 못해 쓰러졌다. 챔피언 1·2차전 수훈선수이면서도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해 인터뷰에도 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악착같이 했다. 토스, 디그, 블로킹, 서브에 매 순간 집중했다.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우승이 확정된 순간 내 자신에게 대견한 느낌이 나서 울었다"고 했던 김사니는 스스로를 칭찬할 자격이 충분하다.

김종현 전문기자 marco@donga.com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참석한 남자부(사진 왼쪽)와 여자부 각 팀 감독 및 대표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이재국 | 대한핸드볼협회

우승후보 두산 윤경신 감독 "전승 우승"

2015 SK핸드볼 코리아리그 4일 개막
남 코로사 전력약화...여자부 8팀 경쟁

'2015 SK핸드볼 코리아리그' 개막 미디어데이가 2일 남자부 5개 팀, 여자부 8개 팀 감독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핸드볼 코리아리그는 4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에서 지난해 여자부 우승팀 인천시청과 준우승팀 서울시청, 남자부 우승팀 코로사와 준우승팀 두산의 맞대결로 막이 오른다.

남자부의 경우, 코로사는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 몰락이 예상된다. 센터백 박종규, 골키퍼 이창우 등 국가대표 멤버들은 남

아있지만 훈련량이 부족하고, 선수층이 얇아진 데다 팀의 장애 또한 비판적이라 동기부여도 의문스럽다.

코로사의 자리를 메울 팀이 신흥상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이 카타르에 패해 은메달에 머물며 군 입대자가 대거 발생한 까닭에 상무의 전력에 상승했다. 대표팀 '열광 공격수' 이은호 등 젊은 피가 가세해 힘이 넘치지만, 조직력이 관건이다. 두산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대표팀 사령관도 맡고 있는 윤경신 두산 감독은 "전승으로 우승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의경, 이재우 등 백전노장이 건재해 부상만 없으면 최강 멤버다.

여자부에선 인천시청이 국가대표 에이스 류은희의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난 상태라 춘

추전국시대가 예상된다. 5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한 삼척시청, 임오경 감독이 이끄는 서울시청이 호시탐탐 정상을 노린다.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영입된 박준희를 포함해 경남개발공사에서 김연경, 서울시청에서 이세미까지 프레이저전트(FA)로 영입한 강재원 감독의 부산 BISCO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만년약체였던 광주도시공사가 2012런던올림픽 4강 주역이었던 조호비를 인천시청에서 현금 트레이드해온 것도 사건이다. SK 슈가글라이더즈도 대표팀 주 공격수 오성욱과 김은아의 후계자로 주목 받는 이효진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핸드볼 코리아리그는 서울, 의정부, 부산, 대구, 문경, 강원, 인천을 돌며 5월 27일까지 열린다. 이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포스트시즌을 치른다. 김명준 기자 gatzby@donga.com

최영래 사격연맹회장배 공기권총10m 우승
2012런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최영래(청주시청)가 2일 창원에서 열린 2015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 남자 공기권총 10m 개인전 결선에서 201.0점의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진종오(kt)는 200.8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단체전에선 진종오, 강경태, 한승우가 1741점을 쏜 kt가 우승했다.

김홍빈 원정대, 네팔서 광주U대회 홍보
김홍빈(51) 대장이 이끄는 2015한국로체원정대가 네팔 현지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에 나섰다. 김 대장을 비롯한 7명의 대원은 1일 네팔 카트만두 삼사호텔 입구에 광주U대회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난달 30일 출국한 원정대는 5월 29일까지 세계 4번째 고봉인 로체(8516m) 등정에 도전한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